

1870년대 일본의 ‘정한’ 계획과 동해안

박병섭 일본 竹島=독도 연구넷 대표

- I. 머리말
- II. ‘정한’론 정변 이전 ‘정한’ 계획
- III. 고종의 친정과 일본의 ‘정한’ 준비
- IV. 맺음말

1. 머리말

일본 해군 수로국은 조선 해도로서는 최초인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를 1875년(明治 8) 2월에 간행했다. 이는 영국이나 러시아의 해도를 바탕으로 하여 수십까지 기록한 본격적인 해도다. 이 해도는 잘 알려져 있듯이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 독도 동도를 러시아 이름 ‘메넬라이 초’, 서도를 ‘올리부차 초’라고 명명했는데 이 외에도 여러 특징이 있다. 항만의 확대도로서 라자레프(Lazarev, 영흥)만, 운코프스키(Unkovskii, 영일)만, 러시아의 포시예트(Posiet)만, 금각(金角, Golden Horn, 블라디보스토크)만 등 네 항구를 개재했다. 이 지도는 이름이 <조선동해안도>인데 러시아 항구의 확대도까지 개재한 것이 주목된다. 일본 해군은 이들 두 항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해 6월 일본 해군은 조선에서는 최초로 부산항, 영흥만, 영일만에서 측량을 실시했다. 동해안을 측량했던 배는 군함 운요(雲揚)이다. 그들은 측량 결과 영흥만은 부산 다음의 양항(良港)이며 식량과 소금이 풍부하지만, 군비는 변변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¹ 그런데 이 측량에는 의문점이 많다. 당시 일본은 자국 해안조차 측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영국 측량선 실비아(Sylvia)에 맡기고 측량 기술을 배우던 중이었다.² 이렇듯 측량 기술이 미숙한 일본이 영흥만에서 행한 측량이란 어떤 것이었는지, 또 왜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비해 정치적, 경제적 가치가 낮은 동해안을 먼저 측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많다.

그 당시 일본 정부가 영흥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훗날 초대 주한 일본공사가 되는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는 외무경 테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에게 보낸 서장에서 세와

* 논문 투고일: 2023.4.17, 심사 완료일: 2023.5.15, 게재 확정일: 2023.5.16.

1 김홍수, 2013, 「1875년 朝日交渉의 실태 요인」, 『한일관계사연구』 45집, 316쪽.

2 小林茂, 2011, 『外邦図』, 中公新書, 31쪽.

키 히사토(瀨脇壽人)를 조선 문체와 관련시켜 라자레프항, 즉 영흥만 일대를 탐지해 오게 한다면 반드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썼다.³ 영흥만의 탐지란 군사적인 정탐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는 아주 위험한 임무이다. 당시 신미양요 등을 경험한 조선 정부는 척화(척양)비를 전국에 세워 외세 침입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런 시국에 영흥만에 잠입해 군사적인 정탐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영흥만에 특별한 군사적 정탐을 계획했을까? 이는 필시 일본 정계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정한(征韓)'론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관한 선행 연구는 없는 듯하다. 이 글은 위의 의문점을 해명한다.

일본의 '정한'론이라 하면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등이 조선의 '무례함'을 문책하려는 '정한'론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이고의 '정한'론은 조선의 '무례'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육군대장 겸 참의(參議)인 사이고는 참의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와 함께 구체적인 군사 작전까지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작전 계획에는 결함이 있었다. 조선 동쪽에서는 군사 작전이 전혀 없었으며 만전이 아니었다. 이 글은 그 이유를 해명한다.

한편, '정한'론은 1873년 정변으로 인해 '정한'과 참의들이 모두 하야했기 때문에 끝난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래서인지 정변 이후 '정한' 계획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선행 연구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 정부 안에서 '정한' 계획은 계속 제기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동해안과의 관련도 밝힌다.

이 글에서 연월일은 기본적으로 양력을 사용한다. 또한 인용문에서 () 안은 원문대로이며, [] 안은 필자의 주이다.

3 박한민, 2022, 「1870년대 일본 기록에 나타난 울릉도 개척 청원과 나가사키현」, 『영토해양연구』 제23권, 15쪽.

II. ‘정한’론 정변 이전 ‘정한’ 계획

1. 일본 육군의 ‘정한’ 계획

1870년 일본 외무성은 조선 정부와의 수교를 위해 첫 공식 사절로 외무 권소승(外務權少丞)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을 부산 왜관에 파견했다.⁴ 그들은 외무경 사와 노부요시(澤宜嘉)가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계 등을 가지고 12월 왜관에 도착했다. 이 서계는 조일 정부 간 교제를 제안하는 것이며 천황과 무관했기 때문에 조선 측이 싫어하는 황(皇), 칙(勅) 등의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측은 때마침 일본인도 승선한 독일 군함이 부산에 입항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게 되고 다이슈(對州, 쓰시마) 외 일본 관리들과의 회담을 기본적으로 거부했다. 이로 인해 조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일본 정부는 조선과의 협상을 단절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조선과의 현안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는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1872년 10월 외무대승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조선 측을 위협하듯 군함 가스카(春日) 등을 이끌고 왜관에 들어가 다이슈의 조선에 대한 부채 등을 일방적으로 정산하고 왜관을 점거하여 외무성 공관이라 칭했다.

일본 해군은 가스카함을 조선에 파견함에 앞서 조선의 군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했다. 그들은 요코하마(橫濱) 항에 정박 중인 미국 군함으로부터 ‘미국, 프랑스 등이 조선국을 공격했던 장소, 즉 강화도의 측량도’ 등을 차용해 모사했다.⁵ 그들의 조선 공격이란 병인(1866), 신미(1871) 양요를 말한다. 또 가스카함은 부산에서 조선 지도를 입수했다. 이 지도는 왜관에 있는 것을 압수했던 듯하다. 해군 수로국은 이 지도를 바탕으로 해도 병(丙) 1호

4 요시오카에 앞서 외무성 출사 사다 하루보 등이 왜관에 파견되었으나 그들은 ‘다이슈 관리’를 칭했으므로 외무성의 공식 사절이 아니었다.

5 小林茂, 2011, 앞의 책, 41쪽.

〈조선전도(朝鮮全圖)〉⁶를 작성하여 다음 해 1873년 10월 간행했다. 이 지도는 조선 북부의 모습이 실제 형상과 크게 다르다.

한편, 육군은 하나부사에게 두 명을 동행시켰다. 한 명은 육군대장 사이고 다카모리와 같은 고향인 사쓰마(薩摩) 출신 벳푸 시게요리(別府重頼) 대위, 다른 한 명은 참의 이타가키와 같은 고향인 도사(土佐) 출신 기타무라 가게나가(北村景長) 소좌(少佐, 소령)이다. 그들은 조선인으로 변장하고 동태를 정찰했다. 귀국 후 그들은 한인들은 약하며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다고 호언했다. 또 벳푸는 조선 팔도를 유린할 것을 열심히 주장했다.⁷ 그는 이를 위해서는 2~3개 중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장담했다.⁸ 그들의 정보나 위무성에서 빌린 지도 〈조선회도(朝鮮繪圖)〉⁹ 등을 바탕으로 사이고는 이타가키 및 태정관(太政官) 좌원(左院) 부의장 이지치 마사하루(伊地知正治) 등과 함께 '정한(征韓)' 계획을 세웠다. 일찍이 일본 정부의 '정한' 계획은 위무성 출사 사다하쿠보(佐田白茅)의 계획¹⁰ 등이 있었으나, 이는 탁상공론에 가까운 것이며 묘당에서는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이타가키 등의 '정한' 계획이 실전을 상정한 첫 계획이었다.

사이고 등은 '정한' 전략회의를 12월 8일경부터 자주 열었다. 최종 '정한'

6 이 지도는 만주 흑룡강 하류 'ぬ児干'까지 기입했으므로 원도의 계통은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소장한 〈조선국도(朝鮮國圖)〉(청구기호 178-449)와 같다. 다이슈가 16세기 무렵 작성하고, 임진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사용했다고 생각된다. 이 계통 지도의 특징은 수많은 작은 섬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 울릉도를 우산도의 동쪽에 그린 것 등이다. 長正統, 1982, 『内閣文庫所蔵朝鮮國圖およびその諸本についての研究』, 『史淵』 119号, 127쪽.

7 煙山専太郎, 1907, 『征韓論實相』. 早稲田大學出版部, 175-178쪽. 이 책에서 군인들은 벳푸 신스케(別府進介) 소좌, 기타무라 조베에(北村長兵衛) 중좌(中佐, 중령)라고 소개되었으나, 太政類典・第二編・明治四年~明治十年・第九十卷・外国交際三十三・諸官員差遣五, 『花房外務大丞外数名差遣』에는 본문과 같이 기록되었다. JACAR(일본 아시아歴史資料센터) Ref. A01000019400.

8 広瀬為興, 1979, 『明治十年西南ノ戦役土佐拳兵計画ノ真相』, 『鹿児島県史料 西南戦争』 제3권, 1017쪽. <https://ndonline.ndl.go.jp/#/detail/R300000001-1000001444304-00>; 諸星秀俊, 2009, 『明治六年「征韓論」における軍事構想』, 『軍事史学』 177號, 56-57쪽.

9 『朝鮮事務書』 卷之十五, 『史官ヨリ朝鮮繪圖返却ノ爲メ來翰』, JACAR, Ref B03030169600-0012.

10 사다의 '정한' 계획은 군대 30대대가 여러 방면에서 공격하여 국왕을 포로로 한다는 것이다. 『大日本外交文書』 第三卷, 88項, 138-140쪽; 佐田白茅, 1903, 『征韓論の舊夢談』, 사각본, 42-45쪽.

전략은 <그림 1>과 같이 병사 4만 명을 부산에 상륙시키고, 2만 명을 육로로 한성으로 진격시킨다, 조선이 요격을 위해 출동하면 나머지 군대 중 1만 3천 명을 강화도 방면에서 한성으로 진격시키고, 7천 명을 평양에 상륙시켜 조선 왕과 군대의 퇴로를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조선의 물산과 교통 등도 조사하고 무기 사용 계획 등을 적은 소책자까지 작성했다. 그들은 조선군에 대해, “대저 군은 난세 말기는 22만 8천 명, 치세 말기는 9만 4천 5백 명, 그중 8분의 1이 기병이다. … 그중 3분의 1을 선봉이라고 칭하며, 도성 안의 군대는 중국식 전통 훈련을 하되 서양식 훈련은 모른다. 훈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병사는 3만여 명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임진왜란이나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과거의 전란도 분석했다. 그들은 후금의 조선 정복이 성공하고 일본의 조선 출병이 실패로 끝난 이유는 일본군이 조선은 극한의 땅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여 여름 5월경부터 정벌을 시작했기에 조선군이 북방 산악지대로 도망쳤다, 또 일본군이 한반도에 침공했을 때 부산에서 상륙하여 북상했으므로 조선군 주력부대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반성에서 이지치는 ‘정환’을 겨울철에 실시할 것, 총기는 미니에(Minié) 총을 사용할 것 등을 제기했다. 이 총이라면 내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본에 대량으로 남아 있고, 또 사족들도 잘 다룰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전략에는 결함이 있었다. 조선 동해안에 대한 작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공격을 시작한다면 조선 왕이 동북쪽으로 피난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이를 알면서도 조선 동해안에서 군함을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작전을 세울 수 없었던 것이다.

11 鹿兒島県教育会編, 1936, 『伊地知正治小伝』, 鹿兒島県教育会, 23-25쪽; 諸星秀俊, 2009, 앞의 글, 51-58쪽.



〈그림 1〉 일본 육군의 '정한' 전략¹²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사이고 등은 본격적인 '정한'론 논의가 일어나기 전부터 '정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일본 국내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사족들의 불만이 심상치 않았다. 일찍

¹² 諸星秀俊, 2009, 위의 글, 5쪽.

이 그들은 신정부에 적대하는 지방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각지에서 싸운 병사들이다. 그런데 내란이 끝나고 판적봉환(版籍奉還), 폐번치현(廢藩置縣) 등 내정 개혁이 진행되자 많은 사족들이 실직했다.¹³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녹봉을 나라에서 받았으나 녹봉제도의 개혁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사족들이 늘어났다. 게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도의 도입은 사족들의 존재 의의마저 잃게 하는 것이기에 사족들이 강경하게 반발해 사회불안이 증대했다.

한편 유수정부¹⁴ 각 부처는 야심적인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 획득을 둘러싸고 대장성(大藏省)과 큰 마찰을 일으켰다. 게다가 대장대보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사임했다. 또 육군대보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연루된 부패 사건이 일어나는 등 정국이 매우 불안정했다. 이 때문에 언제 사족들의 반란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한 사이고는 잘 알려져 있듯이 “내란을 바라는 [사족들의] 마음을 외부로 옮겨 나라를 부흥시키는 원략(遠略)”¹⁵을 구상했다. 사이고의 ‘정한’의 주목적은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의 눈을 조선으로 향하게 하여 내란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곤란한 내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실력자들이 ‘정한’을 주장했던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메이지(明治) 초년에도 있었다. 유신의 삼걸로 불리는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다이슈가 말하는 조선의 ‘무례’¹⁶를 구실

13 1869년 판적봉환에 의해 각 지방 태수가 천황으로부터 번지사(藩知事)로 임명되었는데 수입은 10분의 1로 줄었다. 이 때문에 태수의 많은 가신, 즉 사족들이 실직했다. 게다가 1871년 폐번치현에 의해 번지사(藩知事)제도마저 폐지되고 실직한 사족들이 증가했다.

14 1871년 폐번치현 직후 많은 참의들이 참가한 이와쿠라(岩倉) 사절단이 구미 각국을 순방하고 있었다. 남은 참의 등에 의해 유지된 정부를 ‘유수정부’라고 칭한다.

15 明治 6年 8月 17日付 板垣宛 西郷書簡, 번각문은 大西郷全集刊行會, 1927, 『大西郷全集』 第三卷, 平凡社, 727쪽, <https://dl.ndl.go.jp/pid/1155324/1/1>.

16 다이슈가 말하는 조선의 ‘무례’의 내용은 태수가 1868년 5월 27일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다이슈는 인구의 3할도 생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척박한 섬이기 때문에 조선과 사교(私交) 조약을 맺어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구해 세건선(歲遣船)을 보내고, 수백 년 동안 ‘굴욕적인 밥(嗟來之食)’을 먹어왔다. 이것은 ‘번신의 예(藩臣之禮)’를 취하는 것과 비슷한 굴욕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천황은 한국

로 '정한'을 주장했다. 그 의도는 여론을 '정한'에 집중시킴으로써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고 근대적인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었다.¹⁷ 이들 기도나 사이고의 '정한'은 어려운 내정을 '정한'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실정 전가(轉嫁)형 정한'이라고 부를 수 있다.

2. 일본 외무성의 '정한' 계획

외무성에서는 '국권신장주의자(國權伸張主義者)'로 알려진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가 '정한'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때로는 이타가키 등의 '정한' 전략회의에 참가하기도 하는¹⁸ 등 '정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드디어 독자적인 '정한' 계획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영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소에지마가 주일 영국 공사 파크스(H. S. Parkes)에게 말한 '정한' 구상은 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절반은 청국 국경에 가까운 북서부에, 나머지 절반은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북동부에 상륙시켜 조선 측의 퇴로를 차단한다, 상륙 지점에 각각 1만 명의 병력을 잔류시키고 청국이나 러시아의 개입을 막는다, 나머지 주력 부대를 두 방향에서 남하시켜 열흘 안에 조선을 정복한다는 것이었다.¹⁹ 그는 북방에서 진격하는 이유에 대해 임진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남쪽에서 진격했기 때문에 조선 국왕이 북쪽으로도망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에지마는 위의 전략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조선 서북

에 일본부(日本府)를 세운 적도 있었는데 현재는 부정(不庭), 즉 천황에 대한 조공이 없다.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조선과의 통교를 쇄신하고, 일본이 한국에 은혜와 위협을 병행하여 잘 통어하면 몇 년 후 조선은 일본의 '외부(外府)'처럼 될 것이다. 『大日本外交文書』 제1권 제1책, 288항, 658-666쪽.

17 荒川九寿男, 1974, 「明治初年における木戸孝允の征韓論」, 『皇学館大学紀要』 12号, 237-238쪽, 기도는 1869년 각 지방 태수들의 판적봉환이 이루어지고 중앙집권체제가 거의 확립되자 '정한'에 소극적으로 되었다.

18 鹿児島県教育会編, 1936, 앞의 책, 1017쪽.

19 British Foreign Office, F.O. 46, 168, No.91, 1873.11.3(日本国会図書館 마이크로필름 소장); 宮地正人, 2012, 『幕末維新変革史』 下巻, 岩波書店, 299-300쪽.

부에는 군함의 입항이 가능한 항만이 있지만 동북부에는 그럴 만한 항만이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러시아 항구에 상륙해서 조선으로 남하하는 작전을 모색하고 주일 러시아 공사 부초프(E. Butzov)와 협상에 들어갔다. 소에지마는 일본이 사할린을 포기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영유하는 쿠릴 열도의 일부 섬들을 일본에 양도할 것, 일본이 조선을 침공할 경우 러시아는 중립을 지킬 것, 일본군이 러시아 연안에 상륙해 조선으로 남하하는 것 등을 인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²⁰ 소에지마의 제안에 대해 부초프는 일본군이 러시아를 통행하는 것만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유는 이를 인정하면 러시아의 중립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외무성의 ‘정한’ 구상에서 조선 동북부의 항만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았다.

소에지마가 ‘정한’을 열심히 도모한 이유는 그의 동방정책에 있다. 그는 정부에 제출한 건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러시아의 남침(南侵)이다. 그런데 청국은 힘이 미약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그 임무는 일본이 맡아야 한다. 일본은 북방에서는 조선을 일본의 보호하에 뒤서 러시아의 침략을 막는 한편, 남방에서는 타이완을 공략해 일본이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 타이완이 외국에 넘어간다면 그들은 세력을 청국에 확장시킬 것이며 일본이 위태롭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타이완 해역을 일본 세력 범위에 넣고, 또 조선을 일본의 권력하에 두고 반월형으로 청국을 감싸 동양을 제패하고 러시아의 내침을 방위해야 된다.²¹ 이처럼 소에지마의 ‘정한’의 주목적은 동양을 제패하기 위한 것이며, 그의 ‘정한’론은 ‘제국주의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정한’론 정면

1873년 5월(음) 동래부는 다이슈 상인으로 위장한 일본 상인들을 고발했

20 靛鞠龍馬, 2018, 「外務卿副島種臣と日露領土交渉」, 『國際政治』 191号, 25쪽.

21 煙山專太郎, 1907, 앞의 책, 196쪽.

다. 이들 일본 상인은 예전부터 다이슈 무역서(貿易署)와 거래하던 '미쓰이 오복점(三井吳服店)' 계열 '미쓰코시 오복점(三越吳服店)'의 종업원 3명이었다. 미쓰이는 '육군성 무고사(陸軍省武庫司)'와 거래하는 대상인이었는데 폐번치현과 외무성의 왜관 점수로 인해 다이슈 무역서가 폐지되어 소가죽 등 수입품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미쓰이는 외무성의 알선으로 '무역의 실상'을 시험하기 위해 다이슈 상인으로 위장하여 부산 왜관을 거점으로 장사를 시작했다.²² 동래부는 다이슈 외 상인들이 장사하는 것을 비난하고 단속을 엄격하게 하라는 전갈을 왜관 수문장에게 보내고 수문 안에 게시했다. 이 게시 글에는 일본을 '무법지국(無法之國)'이라고 비난하고, 일본인들이 망착(妄錯)에 빠져 문제를 일으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²³

이 전갈 내용이 왜관에서 외무성에 보고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비등했다. 특히 이타가키 다이스케는 재류자의 보호를 위해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이고 다카모리는 전갈 내용을 이유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므로 먼저 조선 정부를 문책하는 사신을 파견하자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사신으로서 조선으로 가겠다고 제안했다.²⁴ 이에 대해 외무경 소에지마는 외교 교섭은 외무성의 역할이므로 자기가 사절로서 조선에 가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이고는 자신은 외무경처럼 능숙한 교섭은 못 하지만 조선에서 죽을 수는 있다고 주장하고 사신을 사절로 파견할 것을 고집했다. 결국 내각회의는 사이고의 파견을 내결(內決)했다. 그러나 사절 파견은 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미 각국을 방문 중인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사절단의 귀국을 기다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22 『朝鮮事務書』卷之十九, 明治 6年「1月 21日 森山茂へ往信」, JACAR Ref. B03030171800, 0037-0038.

23 『大日本外交文書』제6권, 119항, 282-283쪽.

24 多田好問, 1968, 『岩倉公実記』下卷, 原書房, 49쪽.

사이고가 사절로 파견된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육군대장을 겸하는 사이고가 간다면 이는 일본 정부의 사절이라기보다 천황의 사절, 즉 ‘황사(皇使)’가 된다. 황사는 소기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사과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각오가 필요하다. 또 사이고 자신도 일찍이 에도(江戸) 막부 타도를 위해 활약하던 시절부터 존황(尊皇)의 의지가 강했는데 이번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사절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결심했다. 만약 사이고가 조선에서 사건을 일으켰을 때 조선 측이 잘 대처하지 못하면 일본에서 ‘정한’론이 터질 것이다. 따라서 사이고의 파견은 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았다.

사이고, 이타가키 등은 조선과의 전쟁에 대비해 구체적인 ‘정한’ 전략을 세웠다. 이 내용은 ① 사이고가 참의 겸 육군대장의 자격으로 공식 사절로서 조선에 건너가는 동안 이타가키와 이지치는 육해군을 이끌고 규슈(九州) 이키섬(壹岐島) 가자모토(風本)²⁵에서 대기하고, 만약 사이고의 담판이 결렬되면 즉시 조선으로 출병한다, ② 조선 상륙작전에는 군함 아즈마(東), 류조(龍驤), 닛신(日進), 운요 등 14척과 수송선 3척 및 외국에서 빌린 수송선을 사용한다, ③ 동원 병력은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약 4만 명으로 한다, ④ 진격 작전은 <그림 1>처럼 한다는 것이었다.²⁶

한편, 이와쿠라 사절단은 1873년 9월 귀국했다. 곧 유수정부가 내결한 사이고 다카모리의 사절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 구미 각국의 발달된 문화와 과학기술을 직접 보고 일본의 후진성을 통감한 그들은 일본은 세계의 발전 단계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무라는 신념을 가졌으며 조선과 전쟁 가능성이 높은 사이고의 파견에는 단호히 반대했다.

25 가자모토는 신화에서 진구(神功)황후가 ‘신라 정벌’ 때 출항한 항구이며, 그녀가 개선해 귀향했을 때 가쓰모토(勝本)라고 개칭했다는 전설이 있다.

26 諸星秀俊, 2009, 앞의 글, 56-57쪽.

이는 예전에 '정한' 계획을 세웠던 참의(參議) 기도 다카요시도²⁷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의 뜻대로 관적봉환, 폐번치현이 성사되고 천황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자 '정한'은 근대국가 건설에 해가 된다고 판단해 맹렬히 반대했다. 또한 기도의 '정한'론에 찬동하지 않았던 이와쿠라 및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등도 물론 사이고의 '정한'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했다. 이와 같이 이와쿠라 사절단 참가자들은 거의 내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정한'을 주장하는 참의들과 날카롭게 대립했다. 이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는 타협안으로 사절 파견의 연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사이고의 강한 반대로 타협은 성립되지 않았다. 사이고는 앞의 내결대로 사절 파견을 실시하지 않으면 자기는 자결해 국우(國友)에 사과하겠다고 산조에게 통고했다.²⁸ 만약 사이고가 자결한다면 그 영향은 헤아릴 수 없었다. 경악한 산조는 부득이 사절 파견을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내각이 완전히 분열되었다. 이 와중에 산조는 심통으로 인해 발병해 직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자 우대신 이와쿠라가 태정대신을 대행했다. 이와쿠라는 산조가 결정한 사절의 즉시 파견안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파견 연기안 두 가지를 천황에게 상신했다. 천황은 파견 연기를 명했으며 사이고 등 '정한' 강경파는 정쟁에서 패배했다. 그 결과 사이고, 소에지마 등 참의 5명이 사임하고 소위 이와쿠라·오쿠보 내각이 탄생했다. 새 외무경에는 데라시마 무네노리가 임명되었다.

27 기도의 '정한' 계획은 병력으로 부산항을 개항시키는 것이며, 만약 전투가 시작되면 수년간에 걸쳐 꾸준히 침공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木戸公傳記編纂所, 1930, 『木戸孝允文書第3』, 日本史籍協會, 233쪽; 荒川九寿男, 1974, 앞의 글, 220-221쪽.

28 高橋秀直, 1992, 『征韓論政變と朝鮮政策』, 『史林』 75卷 2号, 93쪽.

Ⅲ. 고종의 친정과 일본의 ‘정한’ 준비

1. 모리아마 시게루(森山茂)의 ‘정한’론

1873년 고종의 친정 체제가 확립되어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세력이 점차 권력을 장악했다. 1874년 조선 정부는 대원군과 가까운 동래부사, 훈도 등을 파직하고 일본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했다.

일본 정부는 부산의 왜관으로부터 ‘조선 국론 일변’이라는 보고를 받고, 5월 15일 모리아마 시게루에게 조선의 ‘사정 탐색’을 명했다.²⁹ 모리아마는 왜관에서 조선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정 탐사의 범위를 넘어 조선 측과 회담을 갖게 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모리아마는 10월까지 협상을 계속한 결과, 앞으로 50일 안에 일본 외무경의 예조판서 앞 서계 등을 가져올 것 등을 합의했다.³⁰

일본으로 귀국한 모리아마는 영국 공사 파크스와 면담해 조선 문제를 논의했다. 모리아마는 자신을 미국 제독 페리(M. C. Perry)에 비유했다. 페리는 군함 4척을 이끌고 포함외교로 미일 협상을 시작하고 1년 후 일본을 개국 시켰다. 일본은 그를 근대화 길의 연 은인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모리아마는 그런 페리를 본받아 조선을 개국시키려면 포함외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는 일찍이 포함외교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금까지 막부(幕府)는 천황의 신하로서 외국과 교제해 왔으나, 이러한 도리에 어긋난 일 등을 바로잡아 황사를 [조선으로] 파견해 설복하고, 서로 구원한다는 지성(至誠)을 보이고, 세계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고, 문명의 힘과 무위를 협동시키고, 서로 협력하여 만국과 대적할 것을 설득한다고 짐스러운 그들이라도 겁사리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병력의

29 『大日本外交文書』 제7권, 208항, 361쪽.

30 위의 책, 218항, 414쪽.

도움이 필요하다. 천황의 조서(詔書)를 만드는 사자가 군함 몇 척을 거느리고 부산 왜관에서 동래부로 들어가 사자가 한성에 갈 뜻을 전하고, 평화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민심을 얻고, 병력으로 일본의 위엄을 보여 주고, 관례에 따라 한성으로 갈 것을 알린다. 열흘 후 사자가 강화에서 한성으로 들어간다. 만약 조선이 우리의 예서(禮序)를 거부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자를 모독하고 병사들을 움직인다면 명분은 우리에게 있으니 군대를 진격시켜 단숨에 정복한다. 청국은 이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³¹

모리아마의 '정한'론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조선을 개국시켜 일본이 주도하여 서양 열강국가들과 맞서겠다는 것이다. 한편 모리아마가 생각하는 조선을 단숨에 정복하는 방도는 그가 1875년에 파크스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강력한 육군 2만 명을 조선 북부에 상륙시켜 일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간섭에 대비해 북부에 남기고, 나머지 본대는 수도를 향해 남진하여 산악지대로 도망가려는 국왕을 잡는다는 것이었다.³² 이 방도는 전 외무경 소에지마의 전술을 이어받은 것이며 병사의 수만 5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모리아마는 소에지마의 '정한' 전략을 이어받았다. 그런데 이 계획의 약점인 조선 동북부의 항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2.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의 '정한' 준비와 조선 정탐

세와키는 모리아마나 소에지마 등의 '정한' 계획의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1875년 1월 외무경 데라시마에게 보낸 서장에서 다음과 같이 조선을 현지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 정세를 보면 러시아는 조선을 건들기 시작하고 서양 각국은 지나(支

31 『大日本外交文書』 제3권, 88항, 140-142쪽.

32 British Foreign Office, F.O. 46, 190, Parkes' No.33, 22 Feb 1875; 宮地正人, 2012, 앞의 글, 297쪽.

那)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빨리 결정해서 지나 동북 성경(盛京)에서 조선 남안 큐에루포루토(Quelpart, 제주도) 제도(諸島) 및 조선 동북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초산(두만강 남쪽) 지방에 사람을 보내 지형, 인물, 산물을 비롯해서 유럽·러시아 사람들의 상황을 면밀히 탐색하게 하는 한편, 해상에는 군함을 파견하고 위 지역의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고 압초 등을 조사할 것을 바랍니다.³³

세와키가 말하는 성경은 그가 1862년에 데즈카 리쓰조(手塚律藏)라는 개명 전 이름으로 번역한 『콜튼 씨 만국도지(格尔屯氏 萬國圖誌)』³⁴에 부속된 지도 <콜튼 씨 지나지도(格尔屯氏 支那地圖)>(그림 2)를 보면, 랴오둥(遼東)반도 및 랴오둥만을 포함한 현재 랴오닝(遼寧)성 전체를 말한다. 그는 조선에 인접한 성경에서 조선 서해안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선 동북부에 군함이나 사람을 보내 수로나 지형 등을 조사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러시아의 극동 진출에 있다. 그는 위의 서장에서 러시아는 베이징(北京)조약에 따라 연해주를 얻은 다음 조선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로 두만강을 건너오는 조선 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의 진출에 따른 폐해가 일본에 미치기 전에 조선을 일본 측에 끌어들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책으로 조선과의 친화를 도모해 일본이 교화를 실시하고 기술을 전수하면 조선은 스스로 복종할 것이다, 게다가 그들에게 러시아의 위협을 잘 설명하면 조선이 일본 측에 서게 될 것은 틀림없을 것이며 이런 책략을 실행하고 싶다고 제안했다.³⁵ 세와키는 이 책략을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군사적 해결도 고려하고 군함 파견에 대비해 수로 조사도 제안했던 것이다.

33 寺島宗則研究会, 1987, 『寺島宗則關係資料集』 下卷, 示人社, 564쪽.

34 手塚律藏·佐波銀治郎, 1862, 『格尔屯氏 萬國圖誌』, 복각판은, 鈴木忠, 1991, 『佐波銀治郎の生涯』, 佐倉歴史顕彰会. 원본은, Colton, G. W., 1855, Colton's Atlas of the World Illustrating Physical and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35 寺島宗則研究会, 1987, 앞의 책, 564쪽.



〈그림 2〉 세와키가 번역한 〈골튼 씨 지나지도(格爾屯氏支那地圖)〉(일부)

세와키는 “러시아의 폐해가 일본에 미치지 전에”라고 썼는데 러시아의 폐해가 이미 일본에 미쳤던 일이 있었다. 남하정책을 실시하던 러시아는 1861년 다이슈 서해안 중앙에 있는 이모사키(芋崎)를 점거해 조차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과 영국이 몹시 반발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6개월 후 퇴거했다.

세와키의 제안에 대해 외무경 데라시마는 조선 동북부의 조사를 인정하고 태정대신 산조에게 문의서 「포시에트 탐지를 위해 외무성 관원 두어 명을 파출할 것에 관한 문의」를 제출했다. 이 내용은 “러시아국 포시에트는 조

선국에 인접하여 그곳의 상황을 가장 잘 탐지할 수 있으므로 그곳의 탐지, 조사를 위해 이달 하순부터 관원 두어 명을 포시예트에 파견하는 일을 문의합니다”라는 것이었다. 문의서의 제목이 ‘포시예트 탐지’이므로 조사는 조선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관심 등도 조사 대상일 것이다.

외무성의 문의에 대해 태정관은 3월 31일, “공무로 청국에 파견할 것, 외무성 7등 출사 세와키 히사토”³⁶라는 사령을 보냈다. 이처럼 태정관은 제목을 청국 파견으로 바꾸었으므로 ‘포시예트 탐지’라는 명목이 사라졌다. 이는 포시예트 탐지를 비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시예트 탐지는 주목적 이 아님을 의미한다. ‘청국 파견’이라는 사령장을 받은 세와키는 「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 제출했다.

이번에 청국 근항(近港) 시찰 명령을 받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명심할 것

- ① 각 항구의 형태, 축항(築港) 착수의 순서를 조사할 것
- ② 무역상황, 당지(當地) 산물, 수출입의 다과, 매해 산물의 증가 여부를 조사할 것
- ③ 각 항구 일반인의 풍습, 토지의 험저(險阻), 인구의 정도, 기후의 한난, 상선(商船)의 다과 및 교법(教法)을 정탐할 것
- ④ 조선 동북부의 러시아 영토에 근접한 지방에 들어갈 때는 양항(良港)을 검출할 것
- ⑤ 포시예트에 도착하여 상황을 보아 토착인을 고용하여 조선 땅으로 들어가서 토지, 풍속 등을 탐색할 것
- ⑥ 포시예트에서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때는 포시예트에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 진대(鎭臺) 총독을 개인적으로 면회하여 청원할 것
- ⑦ 그곳 토착인과 조선인을 고용하여 길을 인도하게 하고 사정을 정탐할 것³⁷

36 『太政官日誌』 明治 八年 三月 三十一日.

37 一、外務省七等出仕瀨脇寿人外一名商況視察トシテ露国領「ポシエット」へ派出ノ件 自明治八年/

이를 보면 세와키의 첫째 임무는 축항에 착수할 순서를 조사하는 것인데 '축항 착수'에서 어느 나라의 축항을 말하는지가 모호하다. 청국은 이 근처에 바다가 없다. 세와키의 당초 목적은 조선 정탐이며, 또 위 「훈령」안의 문맥이나, 이 문서에 첨부된 후술하는 쪽지에서 짐작하면, 축항은 조선에서의 축항을 가리킬 것이다. 이 「훈령」안은 외무성 공신국(公信局)에서 수정안이 작성되는 등 여러 사람이 수정을 가했는데 최종적인 외무성의 「훈령」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으며 수정된 원고만 볼 수 있다. 이 원고에는 외무대보의 도장도 찍혀 있으므로 이것이 최종 문서일 가능성도 있다. 이 원고에서 세와키의 「훈령」안은 다음과 같이 대폭 수정되었다.

- ① 각 항구의 형태 및 저쪽(彼ノ方) 개항(開港) 착수의 모양새를 탐지할 것 [전면 수정됨]
- ②, ③ [거의 변함이 없음]
- ④ 조선 동북부의 러시아 영토에 근접한 지방에서 양항 유무의 일 [마지막 부분 수정]
- ⑤ [모두 삭제]
- ⑥ 블라디보스토크 및 포시에트에서 소요(所要)사건이 있을 때는 그 지방 러시아 국에 체류하고 있는 진대 총독에게 면회를 요청하여 의뢰할 것 [전면 수정]
- ⑦ 그곳의 토착인과 조선인을 상황에 따라 고용하여 길을 인도하게 하고 사정을 정탐해도 무방하다 [‘상황에 따라’, ‘무방하다’가 추가됨]

이처럼 세와키의 임무 제①항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 주목된다. 그 이유는 원고에 붙인 쪽지에 “타국 영지에서 우리들이 항구를 건설할 리가 없

分割1, JACAR, Ref. B16080698600-0346; 구양근은 아래 논문에서 이 문서를 '일본 외무성의 출장명령서'로 보았는데 이는 세와키가 작성한 '훈령'안으로 보아야 한다. 구양근, 1998,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한일관계사연구』 9호, 213쪽.

다. 축항 착수 순서란 무슨 일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썼다. 이 글 옆에 ‘太一’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이는 4등 출사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가 쓴 것으로 보인다.³⁸ 그는 구 막부에서 외국 관계를 담당한 이색적인 관리이다. 그는 일본이 타국에 항구를 건설하기 위한 조사를 세와키가 하겠다는 계획을 부인했다. 이 ‘타국’을 러시아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으므로 ‘타국’은 조선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세와키 등은 조선에 항구를 건설하기 위한 조사를 계획했다고 해석된다. 또한 제④항을 보면 세와키는 조선 동북부에 들어가 좋은 항구를 찾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기록을 종합하면, 세와키는 조선 동북부에서 좋은 항구를 찾아 거기에 군함이 착안할 만한 항구의 건설에 착수할 순서를 조사하는 것을 첫째 임무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목적은 전 외무경 소에지마의 과제였던 조선 동북부에 군대를 상륙시키는 방도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나베는 그런 계획을 부인하고 대신 ‘저쪽 개항 착수의 모양새’를 탐지할 것을 세와키의 임무로 생각했다. 이 ‘저쪽 개항’이란 조선의 개항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나베는 장차 조선이 개항할 때를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외무경 데라시마도 조선의 항구에 대해 무언가 구상하고 있었던 상황은 앞의 하나부사가 데라시마에게 보냈던 다음 서장에서 알 수 있다.

이번에 조선으로 파견되는 세와키 씨가 혹시 라자레프[영총]만을 잘 탐지해 오면 반드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조(訓條)에는 이름이 없지만 당신이 의미하는 바는 반드시 이 항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tactic[전술]’이나 ‘topography[지형학]’ 등 조금이라도 이는 군관을 동반하

38 1874년 3월 당시 외무성의 서열과 인원은 『外務省職員一覽表』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외무경 寺島宗則, 大輔 공석, 少輔 山口尚芳·上野景範, 大丞 森有禮·宮本小一·花房義質·鹽田三郎, 四等出仕 田邊太一, 少丞 鄭永寧 등 4명, 五等出仕 中山信彬, 六等出仕 伊地知貞馨 등 4명, 七等出仕 瀨脇壽人·森山茂·広津弘信 등 5명, 大録 이하는 생략. JACAR Ref. A09054282000.

면 어떤가요?³⁹

이 서장을 게재한 『테라시마 무네노리 자료집』은 서장의 연도를 1872년으로 보았는데 이는 의문이다. 테라시마가 세와키에게 ‘훈조’를 내린 시기는 1875년 4월이므로 하나부사의 서장도 이즈음 작성되었다고 생각된다.⁴⁰ 하나부사는 영흥만을 군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즈음은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미 1875년 2월 일본 해군 수로부가 영국이나 러시아의 지도를 바탕으로 앞의 <조선동해안도>를 간행해 영흥만의 해도를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영흥만을 하나부사나 테라시마 등은 군사적으로 중시해 장차 개항지로 구상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1875년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 동해안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세와키는 1875년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그 사이의 행보를 일기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지(烏刺細廸斯杜屈見聞雜誌)』⁴¹에 기록했다. 이에 따르면 세와키는 조선 북부에는 잠입하지 않았다. 또한 이 기록에 그의 첫째 임무인 ‘축항 착수의 순서’ 혹은 ‘저쪽 개항 착수의 모양새’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대신 세와키는 조선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김인승(金麟昇)에게서 얻었다. 김인승은 함경도 경흥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러시아의 이민 모집에 응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주하고 러시아 국적을 얻었으며, 당시는 서당을 열어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세와키는 김인승을 일본으로 데리고 돌아와 외무성에서 고용했다. 세와

39 寺島宗則研究会, 1987, 앞의 책, 613쪽.

40 『寺島宗則關係資料集』이 메이지 5년(1872년)으로 소개한 하나부사의 서장의 내용은 3가지 사항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연도가 다른 3통의 서장으로 보아야 한다. 첫 번째 사항은 테라시마가 런던으로 출발하기 직전이므로 이것은 1872년의 사항이다. 다음 세와키에 관한 사항은 본문에 쓴 것처럼 1875년이다. 마지막 사항은 “혹시 지금 갑자기 노력하더라도 결국은 라자레프와 부산, 강화도의 항구 하나를 열리게 함으로써 끝날 것이다”라고 썼으므로 이는 분명히 1872년이 아니며, 조·일 수호 조약을 체결한 1876년 전후의 일이다.

41 一, 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トシテ露國領「ポシエツト」へ派出ノ件 自明治八年/分冊2, JACAR Ref. B16080698700.

키는 김인승에게서 청취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야시 신조(林深造)와 함께 1876년 4월 『계림사략(鷄林事略)』을 간행했다. 제1권은 조선의 지지, 사회, 정치체제 등을 기록했다. 제2권은 군사 관계를 기록했다. 목차는 병제(兵制), 시취(試取), 병선(兵船), 성보(城堡), 군기·군장(軍器·軍裝), 경급(警急), 봉수(烽燧), 연병(鍊兵), 시위입직행순부성문개폐(侍衛入直行巡附城門開閉), 부신(符信), 병적(兵籍), 면역(免役), 구휼·급가(救恤·給暇), 유방(留防), 포핍(褒貶), 군형(軍刑), 역마구목(驛馬廐牧)이다. 제2권은 일본이 조선을 침공할 때 필요한 군사정보를 거의 망라했다. 조선의 군사 기밀 등을 상세히 밝힌 이 책은 일본 정부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된다. 이로써 세와키는 ‘조선 정탐’이라는 소임을 충분히 완수했던 것이다.

3. 일본의 포함외교와 이노우네 요시카(井上良馨)의 도발

조선과의 국교 교섭을 위해 이사관으로 임명된 외무소승 모리아마 시게루는 1875년 2월 외무경 데라시마 무넨오리 등의 서계를 가지고 조선 측이 싫어하는 기선을 타고 부산 왜관에 들어갔다. 이때 그는 군함을 이끄는 소위 포함외교를 원했는데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왜관에서 훈도 현석운(玄昔運) 등과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서계 원본이 일본어로 쓰여 있고 외무성 도장이 찍힌 데다 ‘황상(皇上)’ 등의 글자가 쓰여 있었다. 이 때문에 논란이 있었으나 조선 정부는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즉 일본 사신을 위로하는 연향을 베풀고 그때 서계를 보고 격식을 어긴 곳이 있다면 사리에 의거해 물리치고, 만약 일본 측이 서계를 모두 개수해 바친다면 즉시 받아들일기로 하였다.⁴²

이에 대해 모리아마는 연향 시 서양식 대례복(大禮服)을 입고 연향 대청 정문에서 들어가겠다고 주장해 문제가 생겼다. 조선 측은 전례가 없다고 하여

42 『일성록』 고종 을해년(1875) 2월 5일(음조);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卷, 朝鮮總督府, 365쪽.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협상은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졌다.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판단한 모리아마는 부관 히로쓰 히로노부(広津弘信)를 귀국시켰다. 4월 말 히로쓰는 이 사태를 외무경에게 보고하고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히로쓰는 요청서에, “지금 군함 1~2척을 보내 다이슈와 조선 사이를 왕복·출몰하면서 해로를 측량한다. … 미리 그 바다를 측량하는 것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 어차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썼다.⁴³

이에 대해 외무경 데라시마는 소극적이었으나, 해군대보가와무라(河村, 개명 후는 川村) 스미요시(純義)가 적극적으로 나서 태정관에 「북해 서해 측량 문의서(北海西海測量問書)」를 4월 27일 제출했다.⁴⁴ 그가 말하는 북해는 동해이며, 서해는 황해이다. 해군은 조선 동해안과 남해안, 서해안의 측량을 신청했던 것이다. 이 문의를 허가되어, 5월 4일 해군성은 태정대신에게 군함 운요함과 다이니테이보(第二丁卯)함을 쓰시마노구니(對馬國)에서 조선국 해로 연구를 위해 회항시킬 것을 신고했다.⁴⁵ 운요함 함장 이노우에는 예전부터 갈망하던 조선행이라는 소원이 이루어져 크게 기뻐했다. 다이니테이보함은 같은 해 4월 13일 측량함으로서 수로료(水路寮)로 인도되었던 측량 전용함이다.

출항 명령을 받은 운요함은 5월 10일 도쿄 시나가와(品川)를 출발했고, 다이니테이보함은 5월 16일 나가사키(長崎)를 출항했다.⁴⁶ 이들은 다이슈 항구와 수로를 조사한 후 운요함은 5월 25일, 제2데이보함은 6월 12일 부산에 도착했다. 운요함에는 측량 담당으로 소위(少尉) 다치미 겐(立見研)이 승선했으며, 다이니테이보함에는 수로료 11등 출사 관리가 1명, 15등 출사 관리가 2명 승선했다.⁴⁷

43 『大日本外交文書』 제8권, 71-72쪽.

44 『朝鮮理事誌』(正本)/2 自明治八年二月至同年十一月四日, JACAR Ref. B03030132600-0180.

45 『公文録』明治八年五月, 第五十一卷, 「海軍省伺(布達)」, JACAR Ref. A01100106200.

46 海軍省, 「記録材料・海軍省報告書第一」, 「海軍省報告書」第一, 自明治元年9月至同9年6月 JACAR Ref. A07062089000, 64-65/133 고마.

47 外務省, 『朝鮮理事誌』(正本)/3, JACAR Ref. B030301327000-0213~0221.

운요함에 탄 다치미 등은 나가사키 현 가라쓰(唐津)를 출항한 5월 20일부터 부산을 출항한 6월 29일까지의 행동을 항행 일지「조선국 회항 잡지(朝鮮國回航雜誌)」⁴⁸에 상세히 기록했다.

일지에 따르면 운요함은 부산항에 도착한 후 부산항과 주변 섬 등을 측량했다. 다만 이때 해군은 이미 조선의 해도를 입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측량은 바다의 깊이 등을 측정하는 정도였다. 또 그들은 절영도에서는 석탄을 채굴할 수 있다는 미확인 정보나 청수 확보의 관점 등에서 섬이 함선의 보급기지로 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훗날 이노우에는 부산을 점령해 절영도에 석탄과 물 보급소를 설치해 운영하면 이 지방은 일본 소유가 된다고 제안했다.⁴⁹ 이 말대로 훗날 보급소가 설치되었다.

그들은 부산에서는 조선에 위협을 가하기 위한 포격 연습 등을 마친 후, 운요함은 6월 19일 일단 부산항을 떠나 10일간 영흥만과 영일만을 측량했다.⁵⁰ 이 항행은 앞의 「조선국 회항 잡지」에 기록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이 사관 모리아마 시게루가 6월 29일 입항한 운요함 이노우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인용한다.

[6월 29일] 운요함이 [부산으로] 돌아왔다. 함장 이노우에 소좌의 말은 다음과 같다. 함경도 영흥에 약 3일 동안 머물렀다. 이 항만의 깊이를 측량했다. 이 땅은 북쪽에 있는 좋은 항만이며 이곳으로 유입하는 대하(大河)가 6조 있다. 어느 날 작은 배를 타고 강을 3리[12km] 거슬러 올라가 [깊이를] 측정해 보니, 작은 증기선은 들어갈 수 있다. 양쪽 강가에는 싸리, 갈대를 많이 볼 수 있으며 평지가 많다. 항만에는 소도가 하나 있다. 제염소가 여러 곳에 있다. 바닷가 사람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다. 도착인은 매우 질박하며 이익으로 유인하면 쉽게 따를 것 같다. ... 돌아가는 길에 영일만에 들어갔다. 이는

48 「明八 孟春 雲揚 朝鮮廻航記事」(防衛省防衛研究所所藏)에 수록됨. 이 자료의 해제는 鈴木淳, 2002, 「雲揚艦長井上良馨の明治八年九月二九日付け江華島事件報告書」, 『史学雑誌』 111권 2호, 68쪽 참조.

49 藤田定市 편, 1930, 『海軍逸話集』, 有終会, 14쪽.

50 金光男, 2007, 「雲揚号事件をめぐる一考察」, 『茨城大学人文学部紀要 社会科学論集』 43호, 38-39쪽.

좋은 항구라고 말할 수 없으나 동북 방면에 있는 항구 가운데 하나이다. 지형은 평탄하고 아주 좋은 옥토이다. 인가도 많다. 경주 현령(縣令)은 우리 군함의 입항을 확인하자 병사 수백 명을 거느린 차관을 파견해서 방문 이유를 물었다. … 그 병사들이 지닌 장비를 보니 일본의 낡은 총과 죽창 같은 것이어서 실로 웃음이 난다.⁵¹

이처럼 운요함의 동해 탐사는 영흥만의 깊이를 측정하고 이곳으로 유입하는 강은 군함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지 등을 조사했다. 영일만에서 이노우에가 만난 '경주 현령'은 영일현감 김명구이다.⁵² 그가 강을 거슬러 올라온 작은 배 선원들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물었더니, 일본인들은 대일본제국 도쿄에서 왔는데 물, 쌀,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답했다. 그런데 작은 배는 관리들과의 문답이 끝나자 아무 것도 보급하지 않고 돌아갔다.⁵³ 일본인들이 말하는 물 등의 보급은 구실이였다. 이 구실은 불법 침입을 감추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런 일을 가능케 하게끔 모리아마는 조선 측과의 협상에서, “작년 가을과 올해 봄 국기의 도판을 제공하면서 만약 지나(支那)해를 왕래하는 [일본] 함선이 풍파나 물, 쌀 때문에 해변에 들릴 일이 있다면 잘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고 청했더니 그들도 양해했다”⁵⁴고 한다.

다시 부산항에 입항한 이노우에는 모리아마로부터 조선과의 국교교섭이 모리아마의 대례복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보고를 위해 도쿄에 사람을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이노우에는 탄약을 보충하기 위해 가고시마(鹿兒島)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모리아마는 “자기가 보내는 사람이 도쿄에 도착하기 전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노우에는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하겠다고 약

51 外務省, 『朝鮮理事誌』(正本)/3 明治八年二月 至同年十一月四日, JACAR Ref. B03030132700-0224.

52 박한민, 2022, 앞의 글, 19쪽.

53 앞의 자료 『朝鮮國回航雜誌』; 金光男, 2007, 앞의 글, 39쪽.

54 『大日本外交文書』 제8권, 53항, 123쪽.

속해 다이니테이보함에도 말하지 않고 부산을 떠나 우선 나가사키로 갔다.⁵⁵ 나가사키에 도착한 이노우에는 곧 함대지휘관 이토 스케마로(伊東祐磨)에게 보고서를 보내고, 끝으로 다음과 같은 ‘정한’론을 주장했다.

오호 이 나라(조선)가 반복(反覆) 무신(無信)하여 실례한 일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지금까지 누차 우리 국사를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번에는 우리의 복제 변혁에 참견하여 말이 비방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교제를 거절하기에 이르렀다. 교제를 거절하는 것은 즉 아국을 배척하는 이치다.

이 같은 실례의 나라를 그대로 내버려 둘 때는 우리의 국위가 서지 않는다. 국위가 서지 않으면 타국의 모만(侮謾)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를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복해서 생각하니, 이 나라는 수백 년 이래 개화(開化)하지 않은 습속으로 실로 완우(頑愚)하다. 그러므로 이치를 가지고 책하더라도 이익이 없다. 오직 병력으로써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나라는 우리 나라에 있어 요용(要用)의 땅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 같이 비례를 행할 때 결국 반드시 다른 나라가 이를 공격할 것이다. 타국이 이 나라를 공격할 때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들의 소유가 됨은 필연이다. 이 나라가 만약 다른 나라의 소유가 될 때는 우리 나라가 다시 머리를 들 때가 없다. 오직 고심(苦心)에 그칠 뿐이다. 장차 이 나라를 우리의 소유로 하면 더욱 나라의 기초를 강하게 하여 세계로 웅비하는 사다리가 된다. 오호 나라의 강약이 이 일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이를 칠 명분이 충분하다. 실로 좋은 기회이다. 또 이즈음 국내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기타 내환이 있다(상세한 것은 별지에 있음).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내리신 그때이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고 치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이라고 믿는다. …

부디 이런 호기회를 깊이 통찰하여 꼭 빨리 출병이 있기를 희망한다.⁵⁶

55 藤田定市 편, 1930, 앞의 책, 9쪽.

56 「明八 孟春 雲揚 朝鮮廻航記事」(防衛省防衛研究所所蔵); 鈴木淳, 2002, 앞의 글, 71쪽; 김흥수, 2022, 『은

이처럼 '정한'의 실시를 호소한 이노우에는 훗날 진술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 가고시마로 가서 탄약과 화약 등을 가득 실었다. 그때 그는 “조선에서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더니 모두들 열심히 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시 나가사키로 갔더니 웬일인지 이노우에에게 북쪽 홋카이도(北海道)로 가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불만을 가진 이노우에는 고베(神戸)항에 가서 해군경과 직접 담판하고 결국 청국 잉커우(營口)로 항행하는 허가를 받았다. 그는 이런 결정이 변하지 않도록 서둘러 나가사키에 가서 석탄을 만재하자마자 출항했다고 한다.⁵⁷

이노우에의 진술은 55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의 증언에는 사소한 기억의 오류가 있다. 그는 ‘해군경’이라고 말했으나 실은 해군대보이며, 당시 해군경은 공석이였다. 또 ‘잉커우’는 정확하게는 그 근처 있는 ‘뉴쵡(牛莊)’이며 당시 랴오둥반도에서 유일한 개항장이였다. 이 개항장은 훗날 잉커우로 옮겼다. 이노우에의 증언 중에서 그가 허가를 받아 가고시마까지 가서 어렵게 탄약을 싣고, “조선에서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노우에는 모리아마로부터 프랑스 선박이 강화도 수역에서 조선 측에서 화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노우에는 요새로 되어 있는 강화도에서는 조선 측 포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맞서 포격전을 벌일 작정이었을 것이다. 즉 이노우에는 강화도에서의 도발을 도모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해군이 그에게 갑자기 홋카이도로 가기를 명했던 것은 그토록 위험한 이노우에를 조선 문제에서 멀리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해군대보 가와무라는 이노우에의 열정에 젖는지 결국은 조선으로 갈 것을 허가했다.⁵⁸ 해군대보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노우에는 곧 조선으로 출항했다. 이 결과 9월에 필연적으로 강화도에서 이노우에의 예상대

요호 사건과 강화도조약, 동북아역사재단, 44-45쪽.

57 藤田定市 편, 1930, 앞의 책, 9-10쪽.

58 김흥수는 앞의 책 66쪽에서 가와무라는 이 자리에서 이노우에 함장에게 행동 지침을 전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로 ‘일’이 일어났다. 바로 강화도 사건이며 그는 포격전 끝에 조선 측 대포 등을 노획해 나가사키로 개선했다.

4.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의 ‘정한’ 제언

일본 외무성에서는 국방의 관점에서 ‘정한’을 주장하는 관료도 있었다. 러시아 공사 에노모토 다케아키이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의 국경 확정 문제를 러시아 측과 협상 중이었는데, 사할린이나 연해주에 급속히 진출한 러시아에 위협을 느끼고 ‘정한’을 주장했다. 1875년 1월 에노모토는 데라시마에게 러시아가 조선에 진출하기 전에 일본은 조선을 혼도하고, 일본과의 교의를 돈독히 하여 일본의 위덕을 조선에 감화시켜야 한다, 또 만약 러시아가 선행하여 쓰시마섬 건너편 조선 땅에 거점을 세운다면 일본의 해양 방어에 위협이 된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모리아마를 조선에 파견한 것은 시의를 얻은 것이다, 만약 조선이 완고하게 일본과 교류를 맺으려 하지 않는다면 일이 일어났을 때 쓰시마섬 건너편에 일본의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진언했다.⁵⁹

이처럼 에노모토의 ‘정한’론은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막기 위해 일본이 부산 부근에 교두보를 만들어 일본의 국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이는 이노우에 요시카의 생각과 비슷하다. 다음 해 에노모토가 바라는 일이 일어났다. 1875년 9월 이노우에가 도발한 강화도 사건이다. 에노모토는 외무경 데라시마로부터 강화도 사건의 발생을 알리는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다.

“9월 20일 우리 군함이 조선의 수도 부근 해안을 측량했을 때 그쪽이 포격했다. 다음 날 아침 그 의도를 물으려고 배를 진행시켰다. 다시 발포를 받아 드디어 교전이 벌어졌다. 우리 병사들은 상륙하여 포대를 파괴하고 철수해 돌아왔다.”⁶⁰

59 『大日本外交文書』 제8권, 71항, 172-174쪽.

60 『大日本外交文書』 제8권, 56항, 127-128쪽.

이에 대해 에노모토는 10월 10일 자 공신(公信)을 데라시마에게 보내고 다음과 같이 진언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쟁의 원인(casus belli)'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묘당이 결의한다면 신속히 전력을 다해 조선을 압력으로 굴복시키고 이쪽 조건(term)을 승낙시켜야 한다. 곧바로 출병해 쓰시마섬의 건너편에 있는 지방이나 섬을 점거하고 거기에 조선의 충신을 불러 최후통첩(ultimatum)을 전하는 것이 빠르다. 또 조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수도로 진격함과 동시에 동해안의 영흥만도 점거해 조선의 세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치우산⁶¹(부산)으로부터 러시아 포시예트만까지의 해안과 항만을 그린 도면은 지난해 푸차틴 씨가 측량한 도면을 입수했으므로 그의 기행문 번역과 함께 7일 안에 우편으로 보내겠다.⁶²

이처럼 에노모토는 곧바로 조선으로 진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그는 일찍이 네덜란드에서 만국공법을 배웠던 외교관이며, 『해률전서(海律全書)』라는 고본을 쓸 만큼 특히 바다의 만국공법을 숙지했던 자이다.⁶³ 외국 선박이 허가 없이 다른 나라 영해에 들어가 측량을 한다는 것이 만국공법 위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를 무시하고 조선 측의 포격을 개전의 명분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약소국에 대해서는 만국공법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적인 관료였다. 게다가 에노모토는 '정한'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보고 서둘러 조선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서적을 번역했다. 그 서적은 프랑스 선교사 클로드 샤를 달레(Claude Charles Dallet)의 저서 『조선 교회사(Histoire de L'Eglise de Corée)』이다. 이 저서에서 '정한'에 유용한 부분을 공사관이 고용한 네덜란드인 의사에게 네덜란드어로 번역시키고 그것을 에노모토가 일본어로 번역했다. 1876년 1월 완성된 고본의 서문에 그는 “‘정한’ 건이 날이 갈수록 임박하고 양국에 무슨 큰일이 있을 것 같

61 아래 논문 15쪽에 게재된 <그림 3> 콜튼의 <일본지도>에 있는 'P. Chusan'은 같은 논문 14쪽에 있는 세와키가 번역한 <그림 2> <일본지도>에 '釜山岬'라고 표기되었다. 박병섭, 2022, 「일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사건과 울릉도 탈취 기도」, 『독도연구』 33호, 14-15쪽.

62 『大日本外交文書』 제8권, 56항, 128쪽.

63 박병섭, 2010, 「한말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35집, 207쪽.

다. 따라서 이 책은 유용하다. 부속 도면 등에서 조선 산천의 위치나 병영의 위치 등이 일목요연하므로 일본의 해륙 장교들에게 반드시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 고본은 9월 『조선 사정』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⁶⁴ 이 저서와 앞서 소개한 세와키의 『계림사략』 등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도구로서 유용했다.

이 무렵 가모 기이치(加茂儀一)에 따르면, 에노모토는 러시아 정부가 조선의 원산을 조차(租借)하여 그곳에 대규모 군항을 건설하려는 것을 탐지했기에 서둘러 서기관을 휴가로 귀국시켜 정부에 전했다고 한다.⁶⁵ 이즈음 일본 측은 포함외교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다. 강화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권 대사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는 군함 6척을 이끌고 조선 측을 위협하면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을 맺었다. 이 합의에 따라 일본 측은 개항지의 하나로 영흥만을 지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문천군 송전을 지정했다. 이에 대해 조선 측은 그 근처에 태조 묘(廟)가 있다며 거부했다. 당시 영흥부는 초가집 풍경이 적막한 곳이며 무역의 이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땅이었기에 일본 측은 다른 지방도 일단 검토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소견’에서 영흥만을 고집했다.⁶⁶ 그 소견이란 에노모토의 정보 등을 고려한 군사적 중요성일 것이다. 영흥만은 대형 군함이 정박할 수 있고,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다. 이 항구를 일본에 대한 개항지로 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진출을 견제할 수 있으며 군사적 가치가 높다. 결국 조일 양국은 영흥만에서 태조 묘에서 멀리 떨어진 원산을 개항지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러시아의 원산 조차라는 계획이 사라졌다. 이처럼 영흥만은 한때 조선 진출을 노리는 러일 양국에 있어서 군사적 요충지였다.

64 榎本武揚 重譯, 1876, 『朝鮮事情』, 東洋社.

65 加茂儀一, 1988, 『榎本武揚』, 中公文庫, 490쪽.

66 『大日本外交文書』 제9권, 191항, 311쪽.

IV. 맺음말

에도(江戸)막부를 타도한 메이지 신정부는 봉건국가를 근대국가로 바꾸는 일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다. 신정부는 정부에 대한 큰 불만을 진정 시키기 위해 메이지 유신의 삼걸로 불리는 기도 다카요시는 1868~1869년에, 육군대장 겸 참의인 사이고 다카모리는 1872~1873년에 각각 '정한'을 주장했다. 그들의 '정한'론은 '실정전가형 정한'이다. 그런데 기도는 그의 뜻대로 일본에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가 거의 확립되자 '정한'에 소극적으로 되고, 드디어 사이고 등이 '정한'을 주장했을 때는 내치 우선을 주장해 맹렬히 반대했다.

사이고 등 군부가 1872년에 세운 '정한' 작전을 군사적으로 볼 때 이는 동해안이 약점이었다. 그들은 동해안에서 군함이 입항해 병사들을 상륙시킬 수 있는 항구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동해안에서의 작전을 누락시켰다. 따라서 일본이 침략했을 때 국왕은 동북부 산악지대로 피난할 수 있어서 이 작전은 만전이 아니었다.

이 결함을 중시한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는 독자적인 '정한' 구상을 생각했다. 원래 그는 동양 제패를 꿈꾸는 '국권신장주의자'이며 조선을 일본의 보호하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소에지마의 '정한'론은 '제국주의형 정한'이다. 그의 '정한' 작전은 병사 5만 명이 조선 서북부와 동북부, 두 곳에서 공격을 시작하고 청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막으면서 남하하여 조선 왕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이 전략의 치명적인 약점은 동해안이며, 조선 동북부에 어떻게 병사들을 상륙시키느냐가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전에 소에지마는 사이고와 함께 '정한'론 정쟁에서 패배해 해야했다.

소에지마의 '제국주의형 정한'론은 외무성 내에서 뿌리를 내렸다. 이를 계승한 자들이 세와키 히사토, 모리아마 시게루, 에노모토 다케아키 등이다. 이들은 러시아 등이 조선으로 진출하기 전에 조선을 일본의 세력하에 두어야 하며, 이를 평화적으로 이루지 못한다면 '정한'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모리아마는 소에지마의 '정한' 전략도 계승해 '정한' 실행

시에에는 2만 군대를 조선의 동북부와 서북부에서 진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조선 동북부에서의 군대 상륙 문제가 여전히 남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와키는 조선 동북부에 잠입하고 적당한 항구를 찾아 군함이 착안할 수 있는 항구로 만드는 절차 등을 조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외무성 내 반대 의견 때문에 그 조사만은 중지되었다. 세와키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던 중 러시아로 귀화한 조선인 김인승을 만나 그를 일본으로 데려가고 그로부터 충분한 조선의 군사정보를 얻었다.

이 무렵 조선에서는 고종의 친정이 실현되었다. 외세 배척 정책을 주도한 대원군이 물러나고 조선 정부는 유연한 대일 정책으로 돌아섰다. 정부는 동래부사에게 부산에 파견된 일본 사자 모리아마 시게루를 위해 연향을 열고 일본 정부의 서계에 관해 협의하라고 명했다. 그런데 모리아마가 관례를 깨고 연향에 서양식 대례복으로 참석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협상이 교착 상태로 빠졌다. 그러자 모리아마는 일본을 개국시킨 미국 페리 제독을 본받아 조선에 대한 포함외교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군함 2척이 파견되었는데 그중 1척은 운요이며 함장은 이노우에 요시카였다. 그는 노골적인 침략 사상을 가진 군인이었다. 이노우에는 부산 근처의 수로를 조사한 다음 특별히 영흥만을 골라 수로 조사를 했다. 일본 해군은 '정한' 실행 시 조선 동북부 항만 문제가 애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즈음 일본 해군은 영국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조선 해도로서는 처음이 되는 <조선동해안도>를 간행하고 있었으며 이 해도와 이노우에의 현지 조사에 의해 '정한' 실행 시 영흥만에 군함이 입항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로써 일본이 '정한'을 실행할 때 애로로 남았던 조선 동북부 항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영흥만 등의 수로 조사를 마친 이노우에는 부산에 돌아와 모리아마에게서 조일 협상이 대례복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이노우에는 복장 문제로 교제를 거절하는 조선의 실례를 간과하면 일본의 국위가 서지 않는다, 조선은 어리석은 나라이지만 일본에게는 유용한 나라이니 타국이 조선을 치기 전에 일본이 공격해야 한다고 군부에 진언했다. 또 그는 조선 서해안을 항행하고 사건을 일으킬 것을 모리아마에게 예언했

다. 그는 요새지 강화도에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탄약을 가득 실었는데 이때도 “조선에서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예언했다. 해군은 이처럼 위험한 이노우에를 조선에서 멀리하려 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이노우에는 오히려 해군대보를 설득하고, 조선 남해, 서해안 수로를 조사하게 되었다. 드디어 강화도 수역에 침입한 결과 필연적으로 포격사건이 일어났다.

이 강화도 사건을 외무경의 전보로 알게 된 러시아 공사 에노모토 다케아키는 네덜란드에서 배운 만국공법을 응용하여 이 사건을 ‘전쟁의 원인’으로 간주하여 부산 근처를 점거하고 조선의 중신을 불러 ‘최후통첩’을 전할 것을 제언했다. 에노모토는 타국의 연안을 허가 없이 측량하는 것은 만국공법에서 불법임을 잘 알면서 만국공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던 것이다. 게다가 에노모토는 조선을 압복하기 위해 육군이 수도로 진격함과 동시에 동해안 영흥만도 점거해 조선을 교란할 것도 진언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동해안에 관한 정보를 러시아에서 입수해 외무성에 보냈다. 또 프랑스 신부가 간행한 『조선 교회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번역하고 그 고본을 ‘조선 사정’이라고 이름 지어 외무성에 보냈다. 일본 정부는 영흥만의 군사적 중요성을 다시 깊이 인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에노모토의 ‘정한’ 방책을 채용하지 않고 포함외교를 계속해 군함 6척을 강화도에 파견했다. 1876년 전권 대사 구로다 기요타카가 조선 측과 협상하고 조일수호조규를 맺었다. 이에 따라 양국 실무자들은 조선의 세 개 개항지 문제를 논의했다. 이 무렵 에노모토는 러시아 정부가 동해안 원산의 조차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 외무경에 전했다. 일본 측은 에노모토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영흥만의 개항을 고집했다. 조선 측은 이에 난색을 표했으나, 결국 원산을 개항지로 결정했다. 이곳은 경제적인 가치는 낮지만 군함 입항이 가능하며, 일본이 ‘정한’을 실행하게 되면 일본군의 중요한 상륙지가 된다. 또 원산이 일본에게 개방되면 러시아의 남하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처럼 원산항은 일본에게는 ‘정한’의 관점과 러시아의 남하를 억제한다는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중요한 항구이며, 1880년(고종 17, 明治 13) 일본에게 개항되었다.

참고문헌

- 구양근, 1998, 「블라디보스토크 건문잡기」, 『한일관계사연구』 9호.
- 김홍수, 2013, 「1875년 朝日交渉의 실패 요인」, 『한일관계사연구』 45집.
- 박병섭, 2010, 「한말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35집.
- _____, 2022, 「일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사건과 울릉도 탈취 기도」, 『독도 연구』 33호.
- 박한민, 2022, 「1870년대 일본 기록에 나타난 울릉도 개척 청원과 나가사키 현」, 『영토해양연구』 제23권.
『일성록』.
- 加茂儀一, 1988, 『榎本武揚』, 中公文庫.
- 広瀬為興, 1979, 「明治十年西南ノ戦役土佐拳兵計画ノ真相」, 『鹿児島県史料 西南戦争』 第三卷.
- 高橋秀直, 1992, 「征韓論政変と朝鮮政策」, 『史林』 75卷 2号.
『公文録』 明治八年五月, 第五十一卷.
- 宮地正人, 2012, 『幕末維新変革史』 下卷, 岩波書店.
- 金光男, 2007, 「雲揚号事件をめぐる一考察」, 『茨城大学人文学部紀要 社会科学論集』 43号.
- 多田好問, 1968, 『岩倉公実記』 下卷, 原書房.
- 大西郷全集刊行会, 1927, 『大西郷全集』 第三卷, 平凡社.
- 藤田定市 編, 1930, 『海軍逸話集』, 有終会.
- 鈴木淳, 2002, 「「雲揚」艦長井上良馨の明治八年九月二九日付け江華島事件報告書」, 『史学雑誌』 111卷 12号.
- 鹿児島県教育会編, 『伊地知正治小伝』, 鹿児島県教育会.
- 木戸公傳記編纂所, 1930, 『木戸孝允文書第3』, 日本史籍協会.
- 寺島宗則研究会, 1987, 『寺島宗則關係資料集』 下卷, 示人社.
- 小林茂, 2011, 『外邦図』, 中公新書.
- 手塚律蔵・佐波銀治郎, 1862, 『格尔屯氏 萬國圖誌』.
- 外務省, 1872, 『朝鮮事務書』, JACAR Ref B03030169600.

1870년대 일본의 '정한' 계획과 동해안

- _____, 1874, 『外務省職員一覽表』, JACAR Ref. A09054282000.
- _____, 1875, 『朝鮮理事誌』(正本)/3, JACAR Ref. B03030132700.
- _____, 1938, 『大日本外交文書』, 日本國際協會.
- 煙山專太郎, 1907, 『征韓論實相』, 早稻田大學出版部.
- 長正統, 1982, 「內閣文庫所藏「朝鮮國圖」およびその諸本についての研究」, 『史淵』 119号.
-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卷, 朝鮮總督府.
- 諸星秀俊, 2009, 「明治六年「征韓論」における軍事構想」, 『軍事史学』 177号.
- 醍醐龍馬, 2018, 「外務卿副島種臣と日露領土交渉」, 『國際政治』 191号.
- 佐田白茅, 1903, 『征韓論の舊夢談』, 사각본.
『太政官日誌』.
- 海軍省, 『海軍省報告書』 제一, 自明治元年9月 至同9年6月.
- 榎本武揚 重譯, 1876, 『朝鮮事情』, 東洋社.
- British Foreign Office, *F.O. 46* (日本国会図書館 마이크로필름 소장).
- Colton, G. W., 1855, *Colton's Atlas of the World Illustrating Physical and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국문초록

일본에서 ‘정한’론이 비등하기 전인 1872년 육군대장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는 ‘정한’의 군사작전까지 세우고 있었다. 그는 실정으로 인한 내란의 발생을 ‘정한’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다. 한편,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는 동방 제패의 일환으로 제국주의적 ‘정한’론을 주장하고 독자적인 ‘정한’ 전략을 세웠다. 이들 사이고와 소에지마의 전략에는 결함이 있었다. 조선 동북부에서 군함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찾을 수 없기에 그 지방에 대한 군사 작전을 세울 수 없었다. 이 결함을 극복하기 전에 사이고, 소에지마 등 ‘정한’과 참의(參議)들은 정쟁에 패해 해야 했다. 그러나 소에지마의 ‘정한’ 구상은 외무성 내에서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 모리아마 시게루(森山茂) 등에게 이어졌다. 세와키는 조선 동북부에 잠입해 양항을 찾아 군항을 만드는 절차 등을 조사하려 했으나 외무성 내 반대로 그 조사만은 중지되었다.

한편, 모리아마는 미국의 페리 제독을 본받아 포함외교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파견된 운요(雲揚)함 함장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는 부산과 동해안의 수로를 조사하고 영흥만에 군함이 입항할 수 있음을 실증하여 동북부 항만 문제를 해결했다. 게다가 그는 모리아마에게서 포함외교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말을 듣자 사건을 일으킬 생각으로 운요함에 탄약을 가득 실은 후 조선 남해안·서해안의 수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노우에는 드디어 요새가 되어 있다고 들었던 강화도의 수로를 측량해 조선수비대와 포격전을 벌였다. 이 강화도 사건을 들은 러시아 공사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는 사건을 ‘전쟁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일본이 부산을 점거해 최후통첩을 전해 수도로 진격함과 동시에 영흥만에도 상륙하고 조선을 압복할 것을 진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로지 포함외교를 진행시켜 강화도조약을 맺었다. 이즈음 에노모토는 러시아가 원산의 초차(租借)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 외무경에 알렸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남하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영흥만을 일본에 대한 개항지로 삼을 것을 고집하고 난색을 보인 조선 측에서 동의를 얻었다. 영흥만은 일본에게는 ‘정한’과 국제정치의 양

면에서 중요한 항만이었다.

〈주제어〉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 에노모토 다케아키
(榎本武揚), 군함 운요(雲揚), 포함외교, 영흥만

ABSTRACT

Japan's Plan for "Conquest of Korea" and the East Coast of Korea in the 1870s

Park, Byoung Sup

(Representative, Takeshima=Dokdo Research Net, Japan)

In 1872, before the theory of "conquest of Korea" boiled over in Japan, Army General Saigo Takamori was setting up a military operation for "conquest of Korea". He tried to prevent the outbreak of civil war caused by misgovernment through the "conquest of Korea". Meanwhile, Foreign Minister Taneomi Soejima, argued for an imperialist "conquest of Korea" theory as part of the conquest of the East and formulated his own "conquest of Korea" strategy. These strategies of Saigo and Soejima were flawed. They did not have information on ports where warships could land in northeastern Korea. Before this flaw could be overcome, Saigo, Soejima, and the other "conquest of Korea" sect were defeated in a political war. However, Soejima's ideas for "conquest of Korea" were passed on to Hisato Sewaki, Shigeru Moriyama, and others within the Foreign Ministry. Sewaki attempted to infiltrate northeastern Korea to find a suitable port and investigate the process of using it for military operations, but opposition within the Foreign Ministry prevented him from doing so.

Meanwhile, Moriyama attempted gunboat diplomacy following the example of Admiral Perry of the United States. Captain Yoshika Inoue, the commander of the Unyo warship, was dispatched for this purpose, surveyed the waterways around Busan and the east coast, revealed that warships could enter Yeongheung Bay, and resolved the northeastern port problem. In addition, upon hearing that gunboat diplomacy was not effective in Moriyama, Inoue loaded up with ammunition with the intention of causing an incident, and began investigating the waterways on the south and west coasts of Korea. Finally, he surveyed the waterways of Ganghwa Island, which he had heard was a fortress, and engaged in an artillery battle with the Korea defenders. Upon hearing of the Ganghwa Island incident, the Russian Minister, Takeaki Enomoto, regarded it as a "cause for war" and called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capture Busan, deliver an ultimatum, march to the capital, and land in Yeongheung Bay to disturb Korea.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only proceeded with its gunboat diplomacy and concluded the Treaty of Ganghwa Island. Around this time, Enomoto obtained information that Russia was planning to seize Wonsan and informed the Foreign Ministry. The Japanese government insisted on using Yeongheung Bay as an open port to deter Russian expansion, and obtained the consent of the Korean Government, which showed reluctance. Yeongheung Bay was an important place in the perspective of military operations for Japan both in terms of

“conquest of Korea” and international politics.

Keywords

Taneomi Soejima, Yoshika Inoue, Takeaki Enomoto, warship Unyo, Gunboat
Diplomacy, Yeongheung Bay

日本語要約

1870年代、日本の「征韓」計画と東海岸

朴炳涉

(日本竹島, 独島問題研究ネット代表)

日本では「征韓」論が沸騰する前の1872年、陸軍大将西郷隆盛は「征韓」の軍事的な作戦まで立てていた。彼は失政による内乱の発生を「征韓」で防ごうとしたのである。また、外務卿副島種臣は東方を制覇するための一環として帝国主義的「征韓」を主張し、独自の「征韓」戦略を立てた。これら西郷や副島の戦略には欠陥があった。朝鮮東北部にて軍艦が着岸できる港湾を見つけられず、その地方の軍事作戦を立てられなかった。この欠陥を克服する前に西郷や副島ら「征韓」派参議は政争に敗れて下野した。しかし、副島の「征韓」構想は外務省内で瀬脇寿人や森山茂らに引き継がれた。瀬脇は朝鮮東北部に潜入して良港を探して軍港を作る手順などを調査しようとしたが、外務省内の反対でその調査だけは中止になった。

一方、森山はアメリカのペリー提督をまねて砲艦外交を試みた。そのために派遣された雲揚艦長井上良馨は、釜山や東海岸の水路を調査し、永興湾に軍艦が入港できることを実証し、東北部の港湾問題を解決した。また、彼は森山から砲艦外交の効果がないことを聞かぬや、事件を起こすつもりで雲揚に弾薬を満載した後、朝鮮南岸・西岸の水路を調査し始めた。ついに、要塞になっていると聞いていた江華島の測量をおこない、朝鮮守備隊と砲撃戦になった。この江華島事件を聞いたロシア公使榎本武揚は、事件を「戦争の原因」と見なし、釜山を占拠して朝鮮に最後通牒を突きつけ、首都に進撃するとともに、東海岸の永興湾にも上陸して朝鮮を圧伏するよう進言した。しかし、日本政府は砲艦外交に徹し、

江華島條約を結んだ。このころ、榎本はロシアが元山の租借を計画しているという情報を得て外務卿へ知らせた。日本政府は、ロシアの南下を抑えるためにも永興湾を日本に対する開港地にすることにこだわり、難色を示した朝鮮側から同意を得た。永興湾は、日本にとって「征韓」と国際政治の両面から軍事的に重要な港湾であった。

キーワード

西郷隆盛、井上良馨、榎本武揚、軍艦雲揚、砲艦外交、永興湾